

## 서비스산업발전TF 박병원 공동팀장 모두발언(6.5)

- 2001년 6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1991년 이후 제조업에서의 고용이 10년째 줄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을 제조업만큼 강하게 만들지 못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서비스 산업이다"를 시작한 후 22년이 지났습니다.
- 그런데 이제는 무역수지가 적자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니 서비스수지의 개선이 없이는 경상수지마저 적자에 빠질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난 22년 별 성과 없이 보낸 것이 그만큼 더 안타깝고, 지식집약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탈바꿈 시켜야 할 우리 TF의 사명이 그만큼 더 중차대 해졌다고 하겠습니다.
- 별로 어려울 것도 없는 과제입니다. 어차피 다 같이 무에서 출발했는데 제조업은 오늘날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를 이룩한 전략, 전술, 정책, 수법을 농업과 서비스업에도 그대로 벤치마킹 하기만 하면 됩니다. 농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해 온 우리 국민이 제조업에 종사한 우리 국민들보다 특히 더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게으른 사람들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개발 초기에 제조업은 기계와 원자재를 사 오는 데 필요한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출 산업이고 농업과 서비스업은 내수 산업이라는 착각 때문에 제조업은 전력을 다해 육성을 하면서도 농업과 서비스업은 그저 내수 충족이나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 뿐입니다. 제조업은 지원을 받는 대신 일찍부터 국제경쟁에 내몰렸지만(70년대 후반 이래의 수입 개방) 농업과 서비스업은 국제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내수에만 매달려 온 결과 국제경쟁력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제조업이 이렇게 강해진 것은 초기의 보호와 지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80년대 이후 국제경쟁에 노출된 결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우리 서비스 TF의 첫 번째 과제를 서비스 수출로 잡은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우리 TF가 출범한 이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충실한 내용의 안전을 만들어 주신 관계부처에 감사드립니다.

□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 국제경쟁에의 노출은 제조업에서는 수입 개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경쟁 노출의 수단입니다. 20여년 전 세계적인 금융회사를 국내에 유치하여 한국을 동북아 국제금융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의 첫 과제로 채택된 것은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서비스업은 지식 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일수록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실합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처럼 최신 기계, 장비만 사 오면 기술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외국인 투자를 통해서 노하우와 트랙 레코드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야 경쟁력이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가지게 되려면 그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소이입니다) 다음 과제로 서비스산업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방안을 제안합니다.

□ 그리고 이번에 4개 수출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잘 만들었는데 조기에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비스산업 대책의 단골 주역이었던 이들 산업보다 교육산업, 디자인 산업, 엔지니어링 산업, MICE 산업, 전시산업, 공연기획산업 등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관심을 덜 보인, 아직은 능력과 실적이 미약한 업종에 대해서 다음 차례 수출촉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90점짜리를 100점 만드는 것보다 60점짜리를 90점 만드는 것이 더 가성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받아 보는 정부의 관심에 더 고마워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한 2차 서비스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을 기대합니다.